

무주산골영화제 평가보고회

영화제로서 전문성 집중, 축제의 다양성 확장한 시도 호평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 평가보고회(이하 평가보고회)가 지난 21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평가보고회(주최 무주군/주관 무주산골영화제집행위원회)는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경진 무주군 부군수와 유승열 무주군의회의장, 유기하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재)무주산골영화제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 다시보기를 시청한 참석자들은 조지훈 무주산골영화제 프로그래머(부집행위원장)로부터 영화제 평가보고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산골영화제집행위원회 측은 △ 자연과 영화, 음악, 책, 전시 등이 조화를 이룬 영화제로 무주산골영화제민의 대체 불가능한 이미지를 확립했다는 점, △배우특별전(배우 박정민 특집)과 영화평론기상 신설, 역대 최

다 관객과의 대화 및 산골토크 진행(29회 80여 명의 전문가)으로 영화제로서의 전문성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또 다양한 공연이벤트와 자넨공원을 활용한 어린이 전용관, 산골미술관, 등나무운동장에서 진행한 낭만 스테이지와 산골객방 등이 전 세대를 아우르며 축제의 다양성을 확장한 시도로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무주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치매친화영화상영, 무주에세이(무주에 어디 볼 데가 있습니까?) 정식출판, 무주의 모습을 담은 관객 영상을 단편 다큐멘터리(순간)으로 제작해 해외 영화제에 출품하는 등도 지역 연계 콘텐츠 개발 · 운용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타깃에 맞춘 SNS별 맞춤 콘텐츠 기획과 영화관과 서점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홍보에 집중하는 등의 활동으로 사용자 중심의 마케팅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무주산골영화제만의 프로그램 정체성 유지와 △프로그램의 질극대화, △영화제 전문성 강화, △복합문화축제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협업, △영화제 자체 기획 콘텐츠 개발 강화, △영화제 홍보 강화와 관객 편의 개선, △관객층 확대, △외국인 관객을 위한 서비스 본격화, △무주 기반 고유문화 콘텐츠와의 연계 확대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논의됐다.

이경진 무주군 부군수는 "지난 7년의 가장 큰 결실은 무주에서 영화제가 가능해졌던 우려를 무주나가 가능했다는 찬사로 당당히 바꾼 것"이라며 "타지 관객, 재방문객, 주변이 추천 관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영화제로서의 전문성 강화와, 불편해소, 관객층 확대, 무주의 차별화된 인프라를 접목한 프로그램 발굴과 정착에 보다 주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미세먼지 노출 양계농가 건강검진

농진청 농작업 환경 개선 기술 개발 자료로 활용 예정

진안군은 21일 미세먼지가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양계 사육농가 3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농업인의 경우 경운·정지, 정식작업 등으로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장시간 야외작업으로 일반인보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기분진 독성증후군, 농부폐증, 직업성천식 등을 대표적인 농업인 직업병으로 연구·관리 중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관찰되는 날이 늘면서 관련 연구와 농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진안군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

전보건팀의 연구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이날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양계농가의 진드기, 바퀴벌레, 곰팡이 등에 따른 알레르기 증상, 혈중 면역기체지표, 폐활량 등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검사 결과는 농촌진흥청이 수행 중인 미세먼지의 농작업자 영향 실태조사 및 농작업 환경 개선 기술 개발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청소년 자아 정립 프로그램 주목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인생의 로드맵'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청소년 자아 정립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받으며 우수한 청소년 교육 사례로 주목을 끌고 있다.

21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내 인생의 로드맵'을 4차례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내 인생의 로드맵'은 청소년의 균

형 있는 성장을 위해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활동에 대한 의견 수렴과 실행 준비 회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능력과 성취동기를 갖도록 하는 활동 프로그램이다.

17일 장수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4회기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모은 자료를 활용해 여행상품을 디자인하고 여행

상품 박람회 열어 성취감을 갖도록 했다.

장수중 학생들은 스스로 경주 여행을 기획하고 준비해 역사 탐방과 체험 활동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능력을 인식하고 성취감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덕남 주민복지실장은 "청소년들이 삶의 주체로서 능동적이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 즉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어야 한다"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를 온다와 캠페인

지역 매아리

진안군, 태풍 위험목 제거 앞장

진안군은 산행에 지장이 있는 등산로 주변 위험목이나 통행 지장수목 제거에 발 빠르게 나섰다.

이번 작업은 지난 9월과 10월 태풍 '타파'와 '미탁'의 영향으로 주요 노선에 쓰러진 피해목과 위험목을 정비하여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요 작업구간은 운장산, 구봉산, 부귀산 등이며, 이달 말까지 인부 4명을 고용하여 10일간 정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등산로의 제공과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등산로 시설 점검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서,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 행사

38명 표창 수여

무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21일 창경 74주년을 맞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밝은 사회를 열어가는 경찰의 모습을 구현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먼저 이날은 박종삼 서장을 비롯해 각 과·계·팀장 20여 명이 직상산 경찰충령비를 참배하였다.

이어 무주경찰 스스로의 자부심을 높이고, 소통과 화합을 위해

직원들의 공연문화 행사 시간을 갖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 38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박종삼 서장은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 선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뜻깊게 보냈다면 앞으로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무주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경찰서는 21일 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경찰서 제74주년 경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장수서 제 74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

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는 21일 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경찰서 전 직원, 박영호 경찰발전위원장, 최창홍 경주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4주년 경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9시에 박정원 경찰서장은 각 과장과 함께 장수경찰서 전 직원을 대표해 장수읍에 위치한 흥촌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본 행사에서는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유공 경찰관에 대한 표창 및 평소 경찰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의료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장수군은 의료취약계층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21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과 결혼이민자 및 미성년 자녀 등 의료취약계층 1만 8,042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장수군의 의료 취약계층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 절감을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장수군보건의료원 유병욱 원장은 "보건의료부문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질병정보 모니터링 강화

무주군이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다.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 학교, 복지시설 등 35개 단체의 신청을 받아 무주군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구성했으며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보건교사와 의료인, 산업체 보건 담당자 등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감염병의 예방관리요령 홍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질병정보 모니터링은 각종 감염병의 연도별·지역별·계절별 발생 양상을 신속·정확히 파악·분석하고 국민 또는 보건기관 등에 예보해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정보모니터 요원들은 감염병(의심)환자 발견 · 진단 시 인적사항 및 발생현황 통보, 검체 채취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